

서희·제마부대 장병에게 보내는 격려 메시지

친애하는 서희·제마부대 장병 여러분,

갑신년 설날입니다. 여러분을 보낼 때가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 떡국은 드셨습니까? 즐거운 명절인데 무더운 이국땅에서 얼마나 고향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보좌관을 여러분께 보내 설을 함께 지내고 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봄 여러분을 보내면서 구호와 복구활동을 통해 이라크 국민에게 평화와 희망을 심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많은 내외신들이 여러분의 탁월한 역량과 헌신적인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전 6·25전쟁의 비극을 많은 우방국들의 도움으로 극복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세계 어느 한 곳의 분쟁이 곧 다른 한 편의 불안정으로 확산되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라크는 위대한 인류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이며 세계 에너지 자원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호와 복구활동이 이라크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친구의 나라로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이라크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얻고 우리 국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추가로 파병될 여러분의 전우들도 하루속히 현지생활에 적응하여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거듭 치하하며 건강과 무운을 기원합니다.